



KRIHS POLICY BRIEF
No. 85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기업연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내용

- 1 지역기업연관표(Regional Enterprise Input-Output Table)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업 간 거래 구조의 다양한 효과를 기업 단위에서 미시적으로 분석이 가능
 -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주력 대기업의 영향이 막대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업 간 거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분석방법론은 아직 부재한 상황
- 2 기업 간 빅데이터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크레탑(CRETOP) 자료를 가공한 후 지역기업 연관표에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
 - 2019년 기준 약 10만 개 기업, 40만 건의 거래자료를 가공하여 1,260개의 주력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유발효과 산출
- 3 기업 간 구매-판매의 다차 협력 과정을 고려하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출
 - 주력기업은 직접적으로 수도권과 강한 구매-판매구조를 형성(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구매 비중 서울 22.8%, 경기 18.8%, 평균 판매 비중 서울 12.6%, 경기 15.1% 등)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력대기업의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 및 유발효과의 크기 분석

활용방안

- 1 (지역기업연관표 작성·분석방법론 제시) 새로운 지역경제 분석방법으로서 국내·외 최초로 기업 거래관계를 고려한 지역기업연관분석의 방법론 제시
 - 기업 간의 다차 협력 과정을 고려한 지역기업연관표의 구축방법, 기업데이터의 가공 방법 및 기업의 생산 및 공급 유발효과 분석방법 등 제시
- 2 (공간 단위의 유연한 적용)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분석의 단위로서 공간 제약 해소
 - 행정구역상의 단위인 시·군·구, 읍·면·동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정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간 단위를 고려한 연구에 적용이 가능
- 3 (기업 단위 효과 검토 가능) 매출액 상위의 주력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 산업생태계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선별적 검토 가능
 - 지역 산업생태계에 있어 기업의 역할, 지역-기업 간 상생방안 고찰 등 관련 학술연구에 기여

남기찬 연구위원
김경민 연구원
안흥기 선임연구위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최예슬 부연구위원



1

기업거래를 고려한 지역경제 분석의 의의

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주체이나,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는 전무

생산 주체인 기업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요소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구매처로서의 기업은 특정 기업이 최종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 즉, 전방연쇄효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판매처로서의 기업은 특정 기업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기업체의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후방연쇄효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주력 대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의존성이 크게 나타남

-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대 대기업의 비중이 전체 GDP 대비 44.3%로 나타나 미국 11.8%, 일본 24.6%보다 의존성이 높았음

표 1 한-미-일 상위 10대 기업의 각국 GDP 대비 매출 규모(2017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매출액(백만 달러)	GDP 대비(%)	매출액(백만 달러)	GDP 대비(%)	매출액(백만 달러)	GDP 대비(%)
677812	44.3	2,294,358	11.8	1,197,727	24.6

자료: CEO스코어. http://www.ceoscore.co.kr/bbs/board.php?bo_table=S00L04&wr_id=533 http://www.ceoscore.co.kr/bbs/board.php?bo_table=S00L04&wr_id=533 (2021년 5월 24일 검색).

- 대기업의 기업수 비중은 전체 기업의 1%에 불과하나, 대외 무역액은 전체 수출액의 64.3%, 수입액의 60.8% 수준에 이룸

표 2 기업 규모별 수출입 기업수 및 무역액

구분		수출		수입	
		값	비중(%)	값	비중(%)
기업수(개)	대기업	857	0.88	1,157	0.60
	중견기업	2,032	2.09	2,520	1.31
	중소기업	94,529	97.03	189,114	98.09
	합계	97,418	100.00	192,791	100.00
무역액(억 달러)	대기업	3,478	64.26	3,010	60.75
	중견기업	936	17.29	776	15.66
	중소기업	998	18.44	1,169	23.59
	합계	5,412	100.00	4,955	100.00

자료: 통계청, 관세청 2020, 2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이처럼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주력 대기업의 영향이 막대한 상황에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분석방법론은 부재한 상황

-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주력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에 대한 지역경제 기대감, LG전자의 구미사업장 매각, 현대·기아 자동차의 부품 수급 차질 문제, 삼성전자를 겨냥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규제 등 최근 불거진 이슈는 주력기업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도 증가를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것이나, 이는 시도 단위로 산업부문을 집계하기 때문에 기업 특성을 총합하여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최근 기업 관련 빅데이터가 취합됨에 따라 기업단위 분석 가능성 대두

그간 지역경제 분석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단위에서 집계되는 총합 자료를 활용한 하향식(Top-down) 방법이었으나,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물경기 흐름을 포착하여 지역경제를 검토하는 상향식(Bottom-up) 분석방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

- 기업 관련 방대한 빅데이터 자료가 취합됨에 따라, 기존의 간접적인 연관관계만을 파악했던 분석적 한계를 넘어서서, 개별 경제주체 간의 직접적인 관계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경제 분석방법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대두

그러나, 기업 간 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지역경제 분석의 핵심적인 요소인, '지역'(Region)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기업 간 거래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기업 간 직접적 연계망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치고 있으며, 기업 간의 n차 협력 과정을 통한 기업거래의 승수효과 도출 및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이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도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경제 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한 '지역' 및 '승수효과'의 요소는 견지 하되,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단위의 효과가 지역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검토하는 '지역기업연관표'(Regional Enterprise Input-Output Table)의 구축 및 분석방법을 소개

-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분석방법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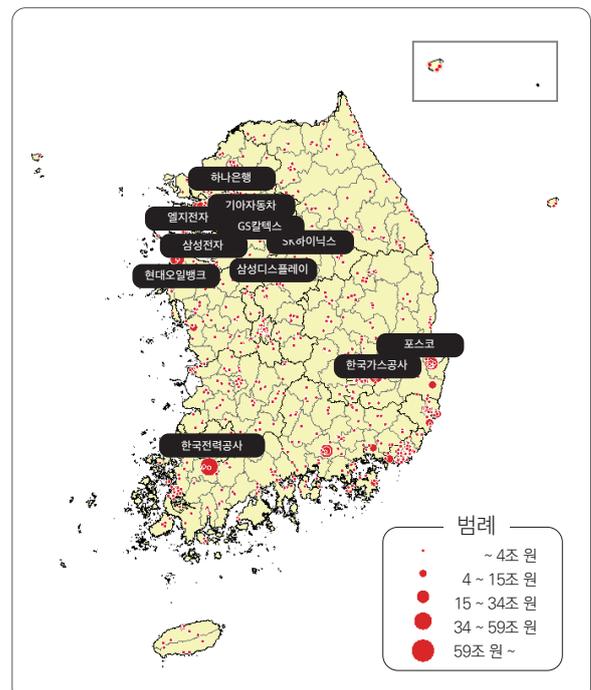
지역기업연관표의 구축 및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의 크레탑(CRETOP) 자료 활용

한국기업데이터의 크레탑 자료를 지역기업연관표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음

- 크레탑은 약 1,100만 개사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정보, 신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의 개요, 주요 재무정보 및 거래처 자료 등의 병합 및 정제방법 등 실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의 가용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구축
- 모든 기업자료를 분석에 포함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의 용이성 및 보고서의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핵심적인 주력기업을 선별
 - 약 10만 개사의 기업자료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대 기업, 시·도별 10대 기업, 시·군·구별 5대 기업을 선별하고 나머지 기업은 지역별 협력기업군으로 묶어 정리
 - 전국, 시·도, 시·군·구 주력기업의 중복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주력기업 1,260개 및 협력기업군 229개(총 1,489개 기업군)로 자료를 구성
- 약 40만 건의 기업 간 거래자료를 분석에 포함된 기업군에 구매-판매의 OD형태로 할당

그림 1 선별된 주력기업의 공간적 분포



지역기업연관표(Regional Enterprise Input-Output Table)의 형태 및 분석방법론 제시

본 자료에서 논의하는 지역기업연관표는 지역과 기업의 구분에 따라 연관표의 틀이 결정되는 구조(남기찬, 김경민, 안흥기 외 2021 참조)

- 크게 지역(R^r)과 기업(K^r)으로 구분되는 정방행렬의 형태로 구성
 - 개별 기업에 대해 기업-기업, 기업-지역에 대한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
- 기업은 다시 매출액 기준으로 주력기업(K_k^r)과 협력기업(K_0^r)으로 구성
 - 시·군·구의 지역단위로 구분된 1489*1489의 정방행렬에 약 40만 건의 기업 간 거래자료를 할당하여 하단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함
 - 여기서, R 는 지역, K 는 기업, K_{mn}^{rs} 는 r지역의 m기업이 s지역의 n기업에 판매하는 거래액을 의미(반대로, s지역의 n기업이 r지역의 m기업에서 구매하는 거래액을 의미)

표 2 지역기업연관표 작성 양식

구매/판매	지역	R^1					...	R^r					Y (최종수요)	SA (총산출)
		기업	K_0^1	K_1^1	...	K_m^1		K_0^r	K_1^r	...	K_m^r			
R^1	K_0^1	K_{00}^{11}	K_{01}^{11}	...	K_{0m}^{11}	...	K_{00}^{1r}	K_{01}^{1r}	...	K_{0m}^{1r}	...	XK_0^1		
	K_1^1	K_{10}^{11}	K_{11}^{11}	...	K_{1m}^{11}	...	K_{10}^{1r}	K_{11}^{1r}	...	K_{1m}^{1r}	...	XK_1^1		
		
	K_m^1	K_{m0}^{11}	K_{m1}^{11}	...	K_{mm}^{11}	...	K_{m0}^{1r}	K_{m1}^{1r}	...	K_{mm}^{1r}	...	XK_m^1		
...		
R^r	K_0^r	K_{00}^{r1}	K_{01}^{r1}	...	K_{0m}^{r1}	...	K_{00}^{rr}	K_{01}^{rr}	...	K_{0m}^{rr}	...	XK_0^r		
	K_1^r	K_{10}^{r1}	K_{11}^{r1}	...	K_{1m}^{r1}	...	K_{10}^{rr}	K_{11}^{rr}	...	K_{1m}^{rr}	...	XK_1^r		
		
	K_n^r	K_{n0}^{r1}	K_{n1}^{r1}	...	K_{nm}^{r1}	...	K_{n0}^{rr}	K_{n1}^{rr}	...	K_{nm}^{rr}	...	XK_n^r		
VIM (부가가치 등)			
SA(매출액)	XK_0^1	XK_1^1	...	XK_m^1	...	XK_0^r	XK_1^r	...	XK_n^r			

주: 음영은 내생부문, 빗금 영역은 외생부문을 의미

구축된 지역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의 방법을 활용¹⁾

- 크게 생산유발효과를 산출하는 수요측면의 모형(Demand-Side Model), 공급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공급측면(Supply-Side Model)의 모형이 활용될 수 있음
 - 생산유발효과를 산출하는 수요측면의 모형은 특정 기업의 생산품 1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한 중간재 구매의 변동에 의한 후방연쇄효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공급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공급측면의 모형은 특정 기업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업과의 판매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 판매망의 변동에 의한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표 3 지역기업연관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 사항

구분	지역기업연관표 구축	분석방법 결정	자료 구축
핵심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영역의 설정(시·도 및 시·군·구 등) • 기업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대상 기업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급효과 부문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공급유발효과 -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 기타 유발효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거래자료원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TOP, NICE 등 기업자료의 선택 • 분석에 맞는 자료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거래자료, 매출액, 종사자, 영업이익 등 기업자료 선별

1) 기타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남기찬, 김경민, 안흥기 외 2021;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을 참조.

3

지역기업연관표를 활용한 기업단위 효과분석

수도권 기업에 대한 강한 거래구조 관찰

구축된 지역기업연관표를 통해 지역기업의 구매 및 판매구조의 확인이 가능

- 모든 시도에서 자기 지역 내 및 서울, 경기도 입지기업에 대한 구매구조가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구매 비중은 서울 22.8%, 경기 18.8% 등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도 기업에 대한 구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구매구조뿐 아니라 판매구조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남기찬, 김경민, 안흥기 외(2021)를 참조

표 4 크레탑 자료의 지역 간 구매구조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서울	43.6	24.6	16.4	25.1	17.9	19.3	13.4	20.3	26.1	36.7	19.8	17.1	22.3	17.6	17.7	14.8	34.3	22.8
부산	3.2	30.3	2.8	1.4	1.2	2.3	10.6	2.4	2.0	2.0	1.2	2.0	2.0	5.2	4.0	12.2	2.3	5.1
대구	2.1	1.7	29.2	1.3	1.0	2.1	2.1	2.2	1.1	1.1	1.6	4.3	0.8	0.8	6.7	2.6	0.5	3.6
인천	4.1	2.9	3.4	19.2	5.2	3.5	4.1	2.9	5.4	3.6	8.7	5.9	3.5	4.2	3.5	3.2	2.3	5.0
광주	1.3	0.5	1.2	0.7	40.1	1.8	0.7	0.9	2.0	0.9	0.5	0.9	3.0	9.3	0.5	0.7	0.5	3.9
대전	0.7	0.5	0.7	0.4	0.8	14.8	0.4	7.3	1.2	0.6	1.5	3.8	1.1	0.8	0.7	0.4	0.4	2.1
울산	3.4	3.2	1.7	1.0	0.5	0.2	25.6	1.6	2.8	0.4	4.1	1.6	1.0	1.9	3.8	2.1	0.1	3.2
세종	0.3	0.1	0.6	0.6	0.3	3.5	0.2	10.5	0.4	0.1	0.8	1.0	0.5	0.3	0.2	0.2	0.2	1.2
경기	23.0	9.1	10.8	24.8	15.1	25.6	10.5	24.1	38.6	23.4	23.9	24.5	14.5	15.2	12.8	10.1	13.9	18.8
강원	0.6	0.3	0.3	0.6	0.1	0.5	0.3	0.5	0.5	16.2	0.5	0.4	0.3	1.1	0.3	0.2	1.0	1.4
충북	2.9	0.9	1.2	1.6	1.0	5.2	4.8	6.5	4.2	3.9	19.5	3.6	2.3	2.1	1.7	0.9	1.2	3.7
충남	3.5	2.5	3.7	5.2	1.9	9.8	2.1	7.2	5.1	4.0	4.9	16.5	5.8	2.4	2.9	2.8	0.5	4.8
전북	1.5	0.6	0.6	1.5	1.9	1.3	0.5	6.8	1.5	1.2	2.8	2.9	32.0	2.8	0.6	0.9	1.6	3.6
전남	2.2	2.7	1.6	7.4	9.0	1.5	2.8	1.7	1.8	1.8	2.1	2.6	4.5	25.4	4.3	2.5	3.0	4.5
경북	3.4	6.3	17.5	5.2	2.0	3.9	11.1	3.6	3.9	2.0	5.6	6.5	3.5	4.9	36.1	7.4	1.9	7.3
경남	3.9	13.7	8.2	3.9	1.8	4.7	10.9	1.7	3.1	1.7	2.3	6.5	2.8	5.6	4.3	38.8	7.4	7.1
제주	0.2	0.1	0.1	0.0	0.1	0.1	0.0	0.0	0.1	0.4	0.1	0.1	0.1	0.2	0.1	0.2	29.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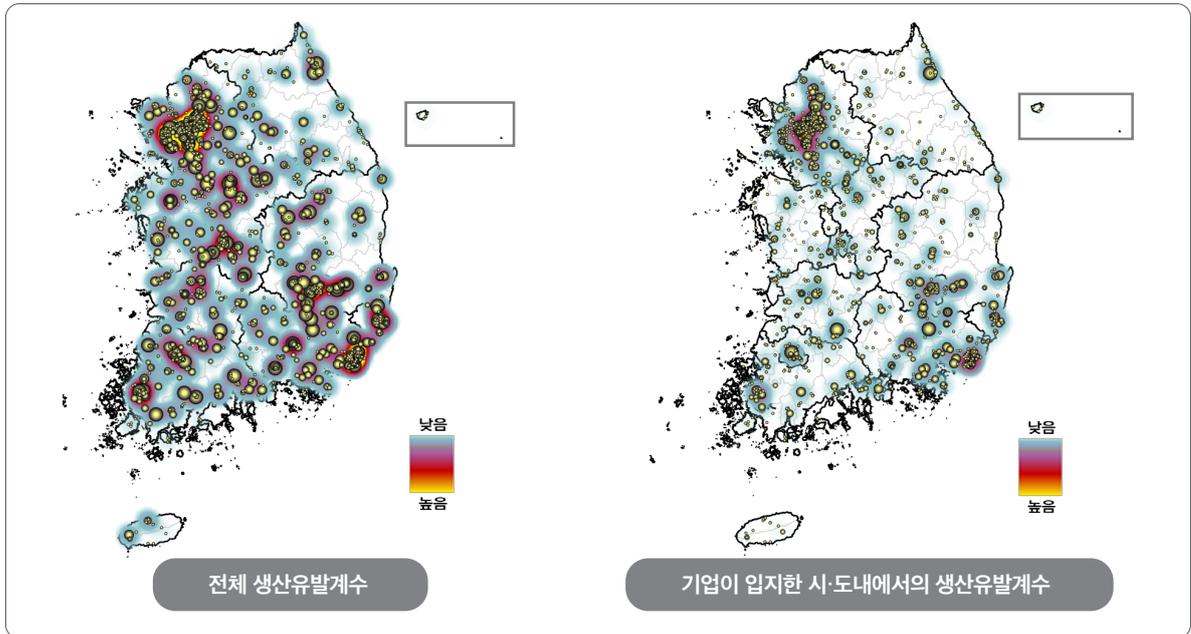
주: 음영은 10% 이상을 의미.
자료: 크레탑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기업의 생산효과는 지역 내에서만 발생되지 않는다

각 지역별 주력기업은 소재 지역 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주변 지역 혹은 원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유발효과를 창출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어떠한 대표 주력기업이 존재하는지, 또한 이러한 기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며, 이는 해당 주력기업과 연계된 다수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임
- 구축된 지역기업연관표를 통해 주력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의 주력기업은 각각 일정 정도의 유발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별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국적으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
- 그러나, 기업이 입지한 시도내에서 유발되는 효과만을 파악하는 경우 수도권, 부울경권 및 광역시 일부에 입지한 주력기업을 제외한 상당수 기업의 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주력기업이 발생시키는 상당 부분의 효과가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하기 때문
 - 즉, 타 지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이는 지역 내 기업의 매출행위에 대한 외부의존성, 유출 등의 부정적 의미뿐 아니라, 지역의 기업생태계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유관기업의 선정, 취약점 파악 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그림 2 주력기업의 생산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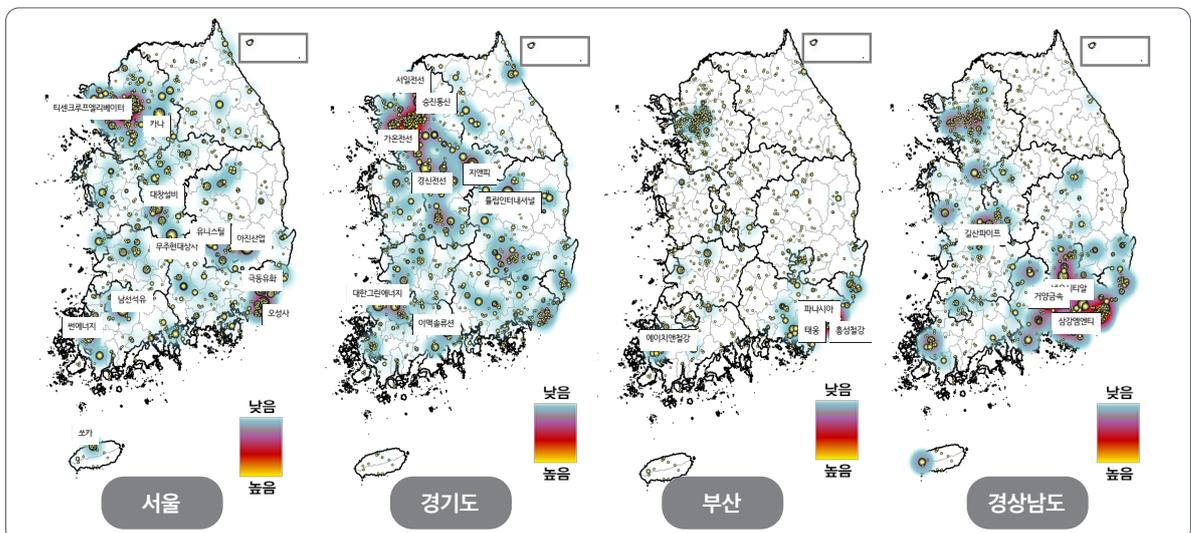
자료: 크레탑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어떤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입지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뿐 아니라 유발효과 또한 편중되는 양상

- 타 지역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검토 가능
- 전국 주력기업의 상당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등)에 일정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는, 각 지역의 주력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도권 기업과 비중 있는 거래관계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비수도권의 주력기업은 수도권의 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비 구매 비중에 있어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 수도권 이외에 부울경권역 등을 살펴보면, 타 지역 기업과의 생산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크지 않는데, 이는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울경권역 기업의 생산유발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

그림 3 주력기업이 각 지역에 미치는 효과: 생산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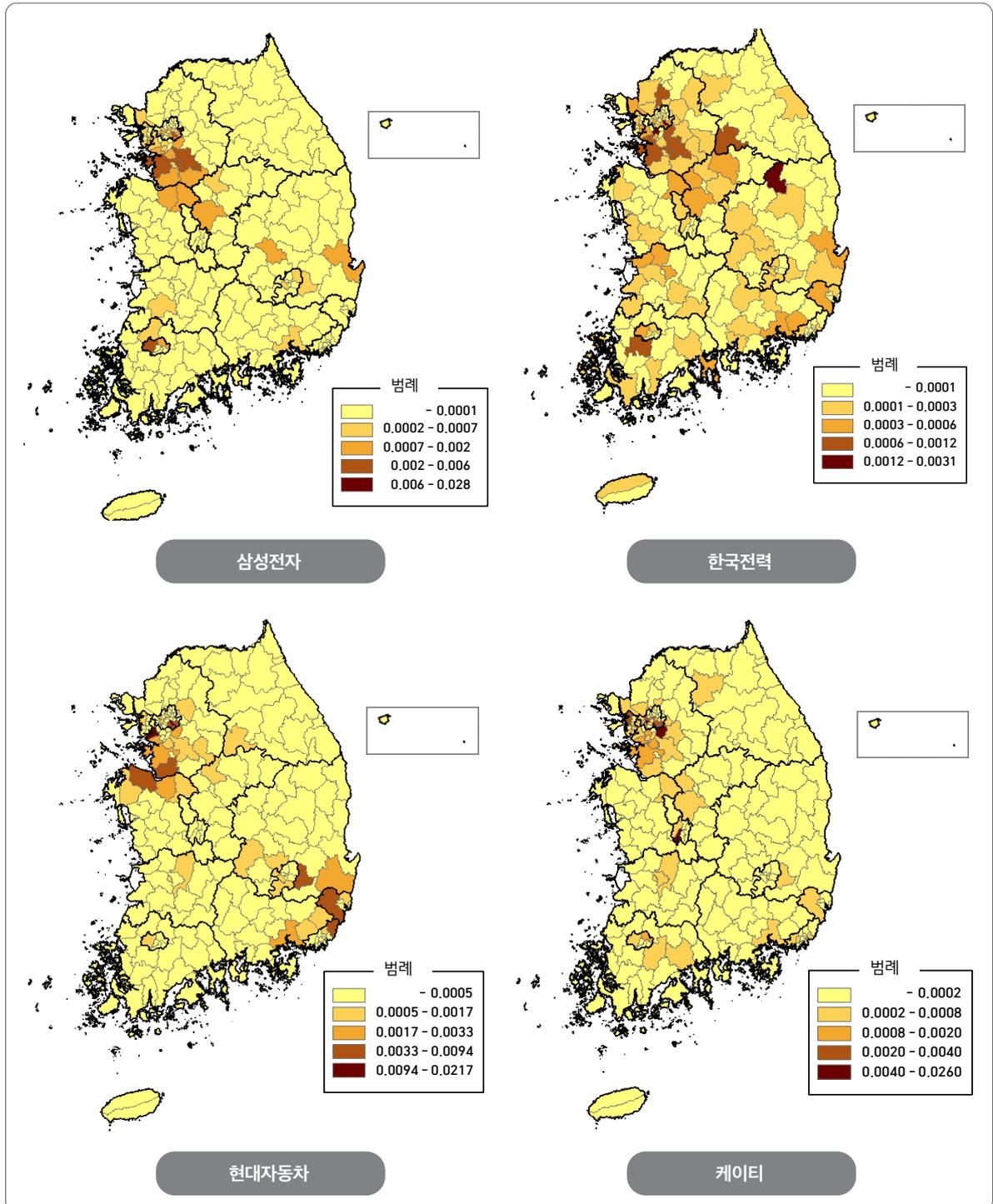
자료: 크레탑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특정 기업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특정 주력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토를 통해 관련 기업생태계 분석에 활용

- 지역기업연관표를 통해 '특정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
 - 이를 위해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케이티를 대상기업으로 검토
 - 삼성전자, 케이티 등과 같이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영향이 국한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같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특정 주력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자료: 크레딧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지역기업연관표의 활용방안

국내 기업 간 거래의 구조를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기업 단위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지역경제 분석방법으로서 '지역기업연관분석'의 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한 선언적 시도

- 지역의 구분 및 기업의 선별방법, 기업데이터의 구축 및 조정과정, 생산·공급유발효과 산출방법 등 지역기업연관표의 구축과 활용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및 방법론을 제시
-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간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기업연관 분석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성을 가짐

지역기업연관표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

- 공간 단위의 측면에서는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 읍·면·동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정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측면에서는 매출액 상위의 주력기업뿐 아니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산업생태계 내부·외부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 유용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본 자료를 가이드로 하여, 기업 간 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후 연구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사전적 검토 및 이를 개선한 과제가 추진되길 희망함

- 기업 관련 빅데이터는 점차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유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로서 역할을 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및 지사의 구분, 기업 간 거래 상품의 식별, 데이터 포괄범위, 개인기업에 대한 분석범위 포함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CEO스코어. http://www.ceoscore.co.kr/bbs/board.php?bo_table=S00L04&wr_id=533 (2021년 5월 24일 검색).

크레탑(CRETOP). 각 연도. 한국기업데이터 내부자료.

통계청, 관세청. 202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12월 18일. 보도자료.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서울: 한국은행.

※ 이 브리프는 “남기찬, 김경민, 안흥기, 조성철, 최예술. 2021. 기업거래 관계를 고려한 지역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남기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kcnam@krihs.re.kr, 044-960-0244)

• **안흥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hkahn@krihs.re.kr, 044-960-0341)

• **최예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yschoi@krihs.re.kr, 044-960-0167)

• **김경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
(kmkim@krihs.re.kr, 044-960-0168)

• **조성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ccho@krihs.re.kr, 044-960-0153)

